

# 광주·전남 올해 5개 국제 스포츠대회 열린다

구례 국제철인 3종경기  
전남·경남 남해안컵 요트대회  
여수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광주 아시안컵 2차 양궁대회  
3개 군 국수산맥 바둑대회

문체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 선정  
코로나 상황 따라 개최 여부 유동적

올해 광주·전남에서 5개의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2일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문체부가 진행한 2021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제철인 3종 경기 등 3개 대회가 선정됐다. 이 대회에 지원되는 국비예산은 모두 9억9000만원이다.

'2021 아시안컵 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대회별 국비지원액은 국제철인 3종경기대회 4억원,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3억5000만원, 2021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

회 2억4000만원이다.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남도는 강진·영암·신안군과 함께 7억원 규모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전남도와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이 공동 개최하는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10개국 8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외 프로대회와 학생부 교류전으로 치러진다.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대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2021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모두 20여개국 1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3개 종목 228km(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기록 경기이다.

2021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여수시에서 열린다. 25개국 350여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회 영상이 20개국에 송출돼 관광 전남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경남·부산시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공동 개최하는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7개국에서 30척의 요트와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여수 인소어 경기를 시작으로 통영을 거쳐 부산까지 150km 구간에서 승부를 겨룬다.

한편, 문체부가 선정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요트대회

국제대회는 코로나19에 따라 개최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제경기대회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에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는 유동적이



배드민턴대회



국제철인 3종 경기

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등은 "국내외 많은 선수 등 대회 관계자들과 국내외의 관광객 방문으로 도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

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방역체계를 갖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생활체육 홈트 보고 건강 챙기세요”

광주시체육회 동영상 지속 제작·보급 등 비대면 프로그램 강화



광주시체육회가 제작한 생활체육 동영상.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외부활동 자제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체육회가 지난해부터 제작한 생활체육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30여 개의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지도해 왔다.

올해는 5개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지도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비대면 영상 서비스(Zoom, 카카오톡 등)를 접목해 실시간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방식도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비대면 개최가 가능한 종목을 우선 선별, SNS 채널 등을 통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외 종목 개최도 검토하는 등 단계별로 개최·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비대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40세 윌리엄스 ‘불혹 파워’

호주오픈 전초전인 여자테니스 투어 시즌 첫 경기 완승

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가 자신의 2021시즌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윌리엄스는 1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WTA 투어 아라 벨리 클래식(총상금 56만 5530 달러)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다리아 가브릴로바(452위·호주)를 2-0(6-1 6-4)으로 물리쳤다.

이 대회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가 올해 치른 첫 공식 경기였다.

1월 29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 출전하기는 했지만 그 경기는 WTA 투어 공식전이 아니었다.

1981년생으로 올해 9월 만 40세가 되는 윌리엄스는 지난해 9월 프랑스오픈 2회전에서 왼쪽 아킬레스건 통증을 이유로 기권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공식 경기에 출전했다.

윌리엄스는 이날 서브 에이스는 2개밖에 없었지

만 28개의 위너를 기록하며 1시간 34분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윌리엄스가 꺾은 가브릴로바는 현재 세계 랭킹이 400위 밖이지만 2017년에는 세계 랭킹 20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윌리엄스의 16강 상대는 츠베타나 피롱코바(137위·불가리아)다.

윌리엄스와 피롱코바는 지난해 US오픈 8강과 프랑스오픈 2회전에서 연달아 만났다.

US오픈 8강에서는 윌리엄스가 2-1(4-6 6-3 6-2)로 이겼고, 프랑스오픈 2회전에서는 윌리엄스가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기권했다.

이번 대회는 8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오픈을 앞둔 전초전으로 호주오픈 대회장에서 펼쳐진다.

애슐리 바티(1위·호주)가 1번 시드, 지난해 호주오픈 챔피언 소피아 케닌(4위·미국)이 2번 시드에 배정됐다. 윌리엄스는 5번 시드다. /연합뉴스



세리나 윌리엄스가 1일 열린 WTA 투어 아라 벨리 클래식 단식 본선 2회전에서 포인트를 따낸 후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골프 해방구’ 피닉스오픈 올해는 관중 하루 5000명 제한

내일 개막...임성재·김시우 등 출전

코스 내에서 갤러리들에게 응원용 물론 음주와 야유까지 허용해 ‘골프 해방구’라는 별칭이 붙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총상금 730만 달러)이 4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스코츠데일(파71·7261야드)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예년의 경우 대회 기간 50만명 안팎, 최대 70만명의 갤러리들이 입장해 대회장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로 유명하다.

흔히 대형 이벤트에 따라붙는 ‘지상 최대의 쇼’라는 수식어에서 착안해 ‘진디 위 최대의 쇼’(The

Greatest Show on Grass)로도 불린다.

그만큼 여느 골프 대회에서 보기 어려운 ‘축제’와 같은 성격의 대회가 바로 피닉스오픈이다.

특히 ‘볼로세움’으로 불리는 162야드 짧은 파 3 홀인 16번 홀 부근에는 2만 석의 스탠드가 설치돼 갤러리들이 티샷하는 선수들에게 응원과 야유를 동시에 보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하지만 올해 대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입장 관객을 5000명 이하, 대회 기간 전체로 보면 2만 명 이하로 제한해 예년만큼의 시끄러운 분위기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대회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저스틴 토머스, 조던 스피스, 브룩스 켈퍼, 리키 파

울리(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 톱 랭커들이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대회가 열리는 지역의 애리조나주립대 출신 온람(스페인), 지난해 우승자 웨브 심프슨(미국) 등도 지켜볼 선수들이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3)와 지난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자 김시우(26)를 비롯해 안병훈(30), 강성훈(34), 이경훈(30)이 출전한다.

교포 선수들인 제임스 한, 존 허, 마이클 김(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도 나온다.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유라피언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총상금 350만 달러)이 펼쳐진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 등 세계적인 랭커들이 다수 출전한다. 교포 선수 케빈 나(미국)와 이민우(호주)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 2관      | 소울                                 |
| 3관      | 세자매, 이 안에 외계인이 있다                  |
| 4관      | 소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               |
| 5관      | 극장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 6관      | 소울                                 |
| 9관      | 에니스트 씨프                            |
| 7관 씨네카를 |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확여행<br>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 |
| 8관 씨네카를 | 소울, 북스마트, 커넥트                      |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발레 살롱콘서트 #1

일시 : 2021. 02. 06.(토) 14: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페라 콘서트 I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  
산책

